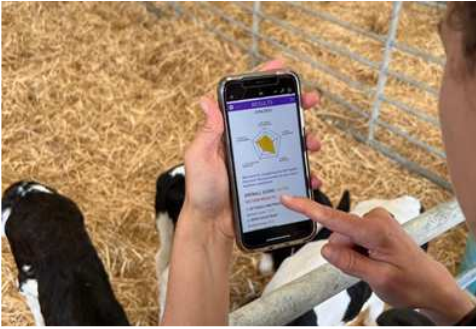




[낙농경영] 美, 젓소 송아지 건강 증진을 위한 앱 개발

- 송아지의 건강 상태 공유를 통해 실시간 진단 및 처방 가능



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어느 때 보다 높아진 가운데, 미국에서 젓소 송아지의 건강 증진을 위한 앱이 출시되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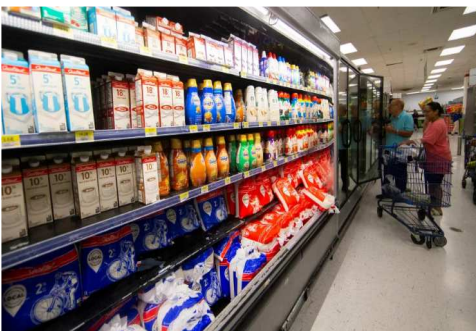
최근 동물용 의약품 기업인 MSD Animal Health는 수의사가 현장에서 일하는 낙농가들과 직접 송아지의 건강 상태를 공유해 필요시 빠르게 처방 및 대처할 수 있는 모바일 앱을 개발했다.

태블릿PC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스마트 기기에서 활용 가능한 이 앱은 낙농가가 5개 항목별 10가지 질문을 통해 송아지의 건강 상태를 평가하고 점수화해 수의사에게 공유하면 수의사는 이를 진단해 이메일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이상 징후 발견 시 필요한 처방을 하게 된다.

이를 통해 송아지의 건강 문제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것은 물론 사육 환경의 문제점과 환경 개선 및 건강 증진 방안을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. < 출처 : vetsurgeon.org, 8월 9일자 >

[시장동향] 캐나다, 물가 급등에 식료품 지출 감소세

- 지난 6월 유제품 가격 8.7% 상승 등 식료품 가격 크게 상승



캐나다에서 인플레이션에 따른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가중되면서 식료품 지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
지난 6월 캐나다의 소비자 물가지수(CPI)가 8.1% 상승하며 1983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오르면서 식료품, 연료 등 물가가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. 특히 식료품 가격이 전년대비 8.8% 오른데 이어 유제품 가격도 8.7%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이에, 최근 소비자 1,517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, 응답자의 60%가 계속되는 물가상승으로 6월 대비 7월에는 가계 지출을 크게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. 품목별로는 외식 및 배달 지출을 줄이는 응답자가 68%였고, 식료품 지출을 줄이는 응답자도 61%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.

이렇듯 소비자 물가 부담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, 특히 유제품을 포함한 식료품 가격이 크게 인상되면서 이미 많은 소비자들이 생활필수품 지출을 줄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
< 출처 : sports.yahoo.com, 8월 9일자 >

위 내용은 세계낙농동향을 전파하기 위해 해외 낙농사이트에서 뉴스를 발췌해 번역한 것으로 낙농진흥회의 공식입장과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 또한, 위 내용을 기사 작성시 활용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